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4년 09월 20일
감 수 이호춘 해운연구본부장

발 행 인 김종덕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3 컨테이너선 15

주요 해운지표 20

건화물선 지난주 케이프선 운임은 전주 대비 4.5% 하락한 26,039달러/일을 기록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145p 하락한 2,366p 기록

황수진 해운시장연구실장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해운경영금융연구실장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영재 연구원 / cyj17@kmi.re.kr | 051-797-4608

최건우 해운정책연구실장 / ak8102@kmi.re.kr | 051-797-4638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하팍로이드, 컨테이너선 신조 발주 계획

- ▶ 하팍로이드는 컨테이너선의 신조 발주를 앞둔 상황에서 선박의 연료 사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분석중임
 - 하팍로이드 이사 Silke Lehmköster에 따르면 10년 후 하팍로이드의 선대 운영에서 연료는 단일 연료가 되지 않을것 이라고 밝힘
 - 따라서 기술적 부분 등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LNG, 메탄올, 암모니아 등의 연료가 복합적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임
- ▶ 하팍로이드는 2021년 이후로 신조선 주문을 하지 않았지만, 최근 선대 교체 및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이중연료 선박을 신조 발주할 것으로 예상됨
 - 하팍로이드는 최대 30척의 신규 컨테이너선에 대해 여러 중국 조선소와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짐
 - 하팍로이드에 따르면 8,000TEU급 미만의 컨테이너선을 건조할 의향이 있으며, 이는 1990년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건조된 5,000TEU급 미만의 노후화된 선박을 교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음

자료: <https://www.lloydslist.com/LL1150675/Hapag-Lloyd-plans-for-multiple-fuel-path-as-new-ship-orders-imminent>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Braemar, 컨테이너 정기선사 협력관계 변동으로 용선시장 강세 전망

- ▶ 글로벌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협력구도 재편을 앞두고 선사들이 제한된 수의 선박을 놓고 경쟁함에 따라 컨테이너 용선시장이 강세를 나타낼것으로 전망함
 - 선박중개업체 브레마(Braemar)에 따르면 2025년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협력 구도 변화가 최근 대형 선박의 활동이 증가한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밝힘
 - 브레마는 현물 운임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난주 파나막스와 포스트 파나막스 부문에서 눈에 띄게 많은 선박이 계약되었다고 덧붙임
- ▶ 글로벌 선사들은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거나 확대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최적화하기 위해 향후 몇 주 동안 컨테이너선 거래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따라서 글로벌 선사들이 제한된 선박을 놓고 경쟁함에 따라 컨테이너선 용선료가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고 덧붙임
 - 시장에는 여전히 친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현대식 대형 선박이 부족함에 따라, 정기선사들은 연료 효율이 높은 선박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https://www.lloydslist.com/LL1150671/Liner-alliance-changes-to-herald-rise-in-boxship-charter-rates-says-Braemar>

김병주 전문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아르헨티나, 파라나 강 수위 하락으로 곡물 수출 차질

- ▶ 로사리오(Rosario) 곡물 거래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곡물 수출의 약 80%를 담당하는 파라나(Parana) 강이 2021년 이후 최저 수위를 기록함에 따라 곡물 선적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 통신사 로이터(Reuters) 통신 측은 아르헨티나 해군의 최신 데이터를 인용해 현재 로사리오(Rosario) 지역의 파라나 강 수위는 0.38 미터로 정상 수위인 2.5 미터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라 보도했음
 - 또한 아르헨티나의 항만해양활동협회(CAPyM) 측은 파라나 강의 수위 하락으로 정상 수위 대비 약 3 피트 8인치(1.12 미터) 가량 흘수가 감소함에 따라 선적량 역시 약 15% 감소했다고 언급함
- ▶ 남미 주요 하천의 상류 지역인 브라질에서 가뭄이 발생하여 파라과이(Paraguay) 강을 포함한 여러 주요 내륙 수로가 최근 몇 주 동안 심각한 저수위를 기록함에 따라 아마존 지역에서의 수로 운항이 제한됨
 - 이에 대해 로사리오 곡물 거래소 측은 단기간 내 저수위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동안 대두, 옥수수, 소맥 등의 곡물 운송에 추가 선박 투입이 필요하다고 예상함
 - 또한 현재 소맥 운송 성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향후 몇 개월 동안 가뭄으로 인한 저수위가 지속된다면 농업 관련 산업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음

자료: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argentina-grains-ships-load-less-cargo-river-levels-hit-near-record-lows-2024-09-19/>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석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입 증가 전망

- ▶ 인도네시아 석탄산업협회(ICMA) 측은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의 석탄 수입량은 2030년까지 연평균 3% 증가하여 지난해 1억 4,090만 톤에서 2030년 1억 7,090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베트남의 석탄 소비 성장세가 가장 유망할 것이라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 석탄광물공사(Vinacomin) 측은 올해에는 약 6,600만 톤, 2035년에는 약 8,600만 톤의 석탄을 수입할 것이라 발표함
 -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의 올해 석탄 수입량 역시 증가세로, 상품시장 분석업체 케이플러(Kpler)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8월의 필리핀 석탄 수입량은 약 7.6%, 말레이시아는 약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동남아시아의 석탄 수입량 증가 전망의 배경에는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발전소 가동률 증가, 재생에너지 보급 미흡,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관점에서의 석탄 사용 등의 요인들이 있음
 - 국제 통신사 로이터(Reuters) 통신은 말레이시아의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 증가와 배터리 및 전기차와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니켈 제련소의 전력 소비량 확대가 동남아시아 석탄 발전량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보도함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동을 제외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가장 낮은 국가들 중 하나이며, 에너지 안보 및 경제성 측면에서 석탄 사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임

자료: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southeast-asia-expected-boost-coal-trade-china-approaches-peak-2024-09-10/>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1. 주간뉴스

석유 수요, 중국의 둔화와 인도의 성장

-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 세계 석유 수요를 주도하는 중국의 경제 침체로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석유 수요는 전년 대비 80만 배럴/일 증가해 2020년 이후 가장 느린 성장세를 보였다고 발표하였음
 -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자 세계 2위의 소비국인 중국의 경제 둔화로 인해 올해 7월 중국의 전년 대비 석유 소비는 4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수요 부진이 이어짐에 따라 미국 원유 가격은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측은 중국 수요 부진으로 향후 2년 내 국제유가가 60달러 초반으로 하락할 것이며,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한다면 브렌트유 기준으로 50달러 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 국제에너지기구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인도의 석유 수요는 약 20만 배럴/일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인도가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전 세계 석유 수요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 주목받고 있음
 - 인도의 석유 소비량은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5%인 약 500만 배럴/일 규모로 세계 3위 석유 소비국으로, 2027년에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에너지 컨설팅 기업 팩츠 글로벌 에너지(Facts Global Energy) 측은 인도의 성장세가 2040년 대 중반까지 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나 중국과 같은 규모는 아닐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음

자료: <https://www.cnn.com/2024/09/18/are-global-oil-markets-heading-for-a-bust-as-china-optimism-fizzles.html?archterm=oil-stares-at-a-bleak-future-as-chinas-economy-sputters-the-good-news-a-market-bust-is-unlikely-2/>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LR2 시장, 원유운반선 투입으로 운임에 큰 타격

- ▶ 영국의 해운 시장 분석기관인 클락슨(Clarksons) 측은 약 400만 DWT 규모의 원유운반선들이 LR2 제품선 시장에 투입됨에 따라 올해 3분기 LR2 현물 평균 운임은 약 38,000 달러/일 수준에 그쳤다고 발표함
 - 클락슨 측은 원유운반선 투입이 없었다면 LR2 운임은 약 55,000만 달러/일 수준이었을 것이나, 주요 선사들이 VLCC와 수에즈막스까지 LR2 시장에 투입함에 따라 운임에 타격이 있었다고 언급함
 - 글로벌 원유거래업체인 트라피구라(Trafigra) 측은 수에즈 운하 우회를 위해 희망봉 경유 항로를 선택하는 상황에서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VLCC 등의 대형 원유운반선을 LR2 시장에 투입했다고 언급함
- ▶ 클락슨 측은 원유운반선의 LR2 시장 투입은 더 이상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선 시장의 수급 균형은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제품선 시장 약세는 2026년 이후에나 예상된다고 언급함
 - 내년 제품선 시장에 대해서는 2025년에는 원유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제마진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제품유 물동량 역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
 - 또한 홍해 위기가 해소되면 운항 거리는 감소하겠지만 탄소 규제에 의한 감속 운항이 그 효과를 다소 완화할 것이며, 폐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급 균형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함

자료: <https://www.tradewindsnews.com/tankers/crude-tanker-invasion-of-product-markets-takes-big-toll-on-lr2-rates/2-1-1710237>

최영재 연구원

051-797-4608, cyj@km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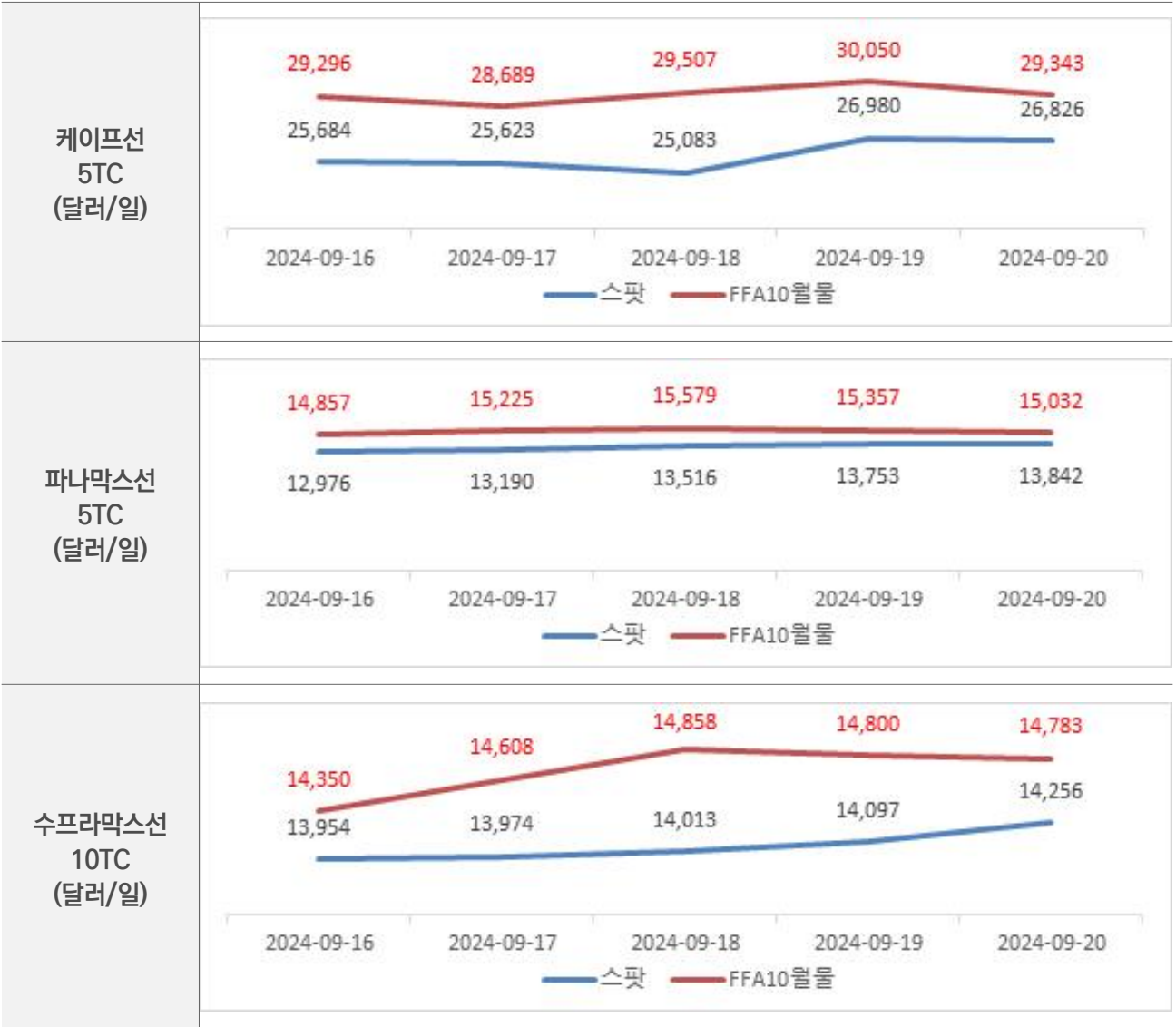
2. 건화물선

황수진 부연구위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구분	9월 3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24년 10월물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26,039	▼ -1,221	-4.5 %	29,377	▲ 276	0.9 %
파나마선 5TC (달러/일)	13,455	▲ 1,206	9.8 %	15,210	▼ -14	-0.1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14,059	▲ 160	1.1 %	14,680	▲ 357	2.5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상승 ▼ 하락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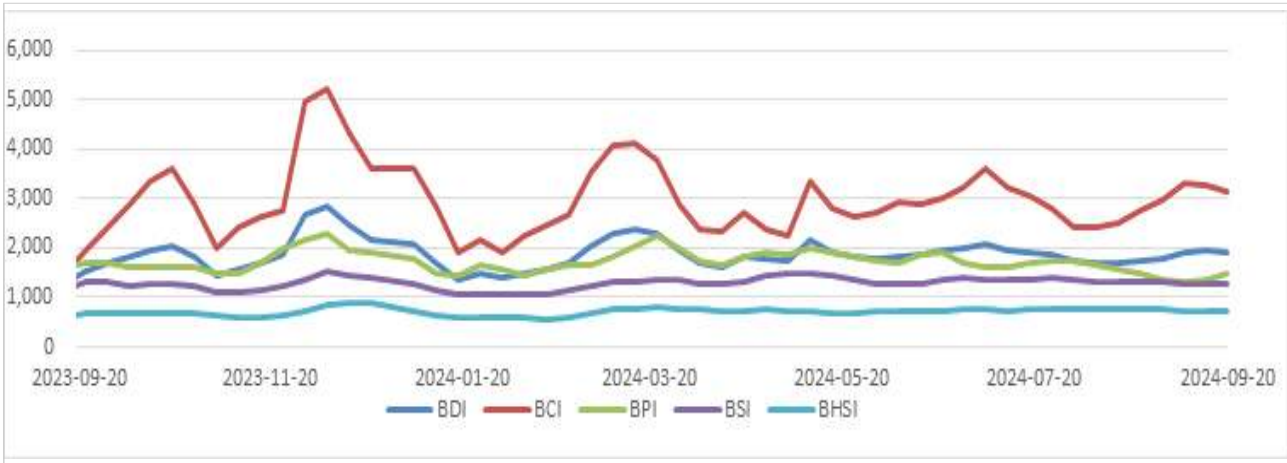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9월 3주	전주 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선형별 운임	운임지수 BDI	1,928	▼ -8	530	3,346	1,378	965	3,369	1,934
	케이프(5TC)	26,039	▼ -1,221	2,246	21,814	11,848	2,505	38,169	16,177
	파나막스(5TC)	13,455	▲ 1,206	7,277	16,669	12,276	10,956	30,746	20,736
	수프라막스(10TC)	14,059	▲ 160	6,874	14,703	10,928	11,685	33,366	22,152
	핸디(7TC)	12,720	▼ -93	7,763	12,703	10,317	11,941	32,166	21,337
1년 용선료	케이프	25,000	▲ 276	13,750	25,125	17,161	12,250	31,500	21,406
	파나막스	16,125	▼ -14	12,050	18,750	15,202	15,250	30,750	22,072
	수프라막스	16,250	▲ 357	12,438	18,625	15,131	14,375	33,250	22,832
	핸디	14,000	- -	9,750	15,500	12,512	12,375	29,000	20,387
건화물선 시장(FFA)									
		'24년 10월물		'24년 4분기물		2025년물		2026년물	
		9월 3주	전주 대비	9월 3주	전주 대비	9월 3주	전주 대비	9월 3주	전주 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29,377	▲ 276	27,594	▲ 92	21,422	▲ 36	20,938	▼ -35
	파나막스(5TC)	15,210	▼ -14	15,310	▼ -68	14,046	▲ 54	13,835	▼ -14
	수프라막스(10TC)	14,680	▲ 357	14,433	▲ 258	12,810	▲ 119	12,544	▲ 107
	핸디(7TC)	13,458	▲ 206	13,255	▲ 185	11,734	▲ 186	11,548	▲ 15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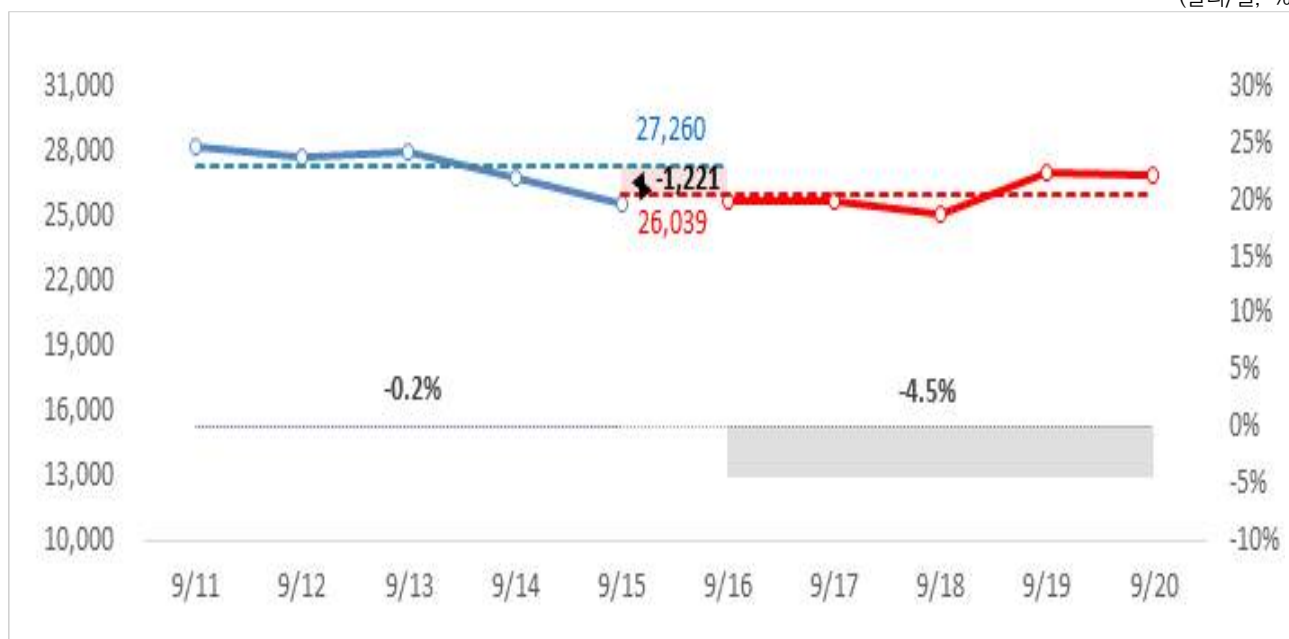
3 케이프선-동향분석

케이프선

(운임) 케이프선 운임이 전주(9월 2주) 대비 4.5% 하락한 26,039달러/일을 기록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9월 3주	9월 2주	전주대비차이	
BCI		3,140	3,287	▼ -147	-4.5%
스팟운임(5TC)		26,039	27,260	▼ -1,221	-4.5%
용선료	6개월	29,250	32,000	▼ -2,750	-8.6%
	1년	25,000	26,200	▼ -1,200	-4.6%
	5년	21,000	21,500	▲ -500	-2.3%
FFA	10월물	29,377	29,101	▲ 276	0.9%
	4분기물	27,594	27,502	▲ 92	0.3%
	'25년	21,422	21,386	▲ 36	0.2%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혼조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 파나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9.8% 상승한 13,455달러/일 기록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9월 3주	9월 2주	전주대비차이		
BPI		1,495	1,361	▲	134	9.9 %
스팟운임(5TC)		13,455	12,249	▲	1,206	9.8 %
용선료	6개월	17,000	16,625	▲	375	2.3 %
	1년	16,125	15,750	▲	375	2.4 %
	5년	14,000	13,750	▲	250	1.8 %
FFA	10월물	15,210	15,224	▼	-14	-0.1 %
	4분기물	15,310	15,378	▼	-68	-0.4 %
	'25년	14,046	13,992	▲	54	0.4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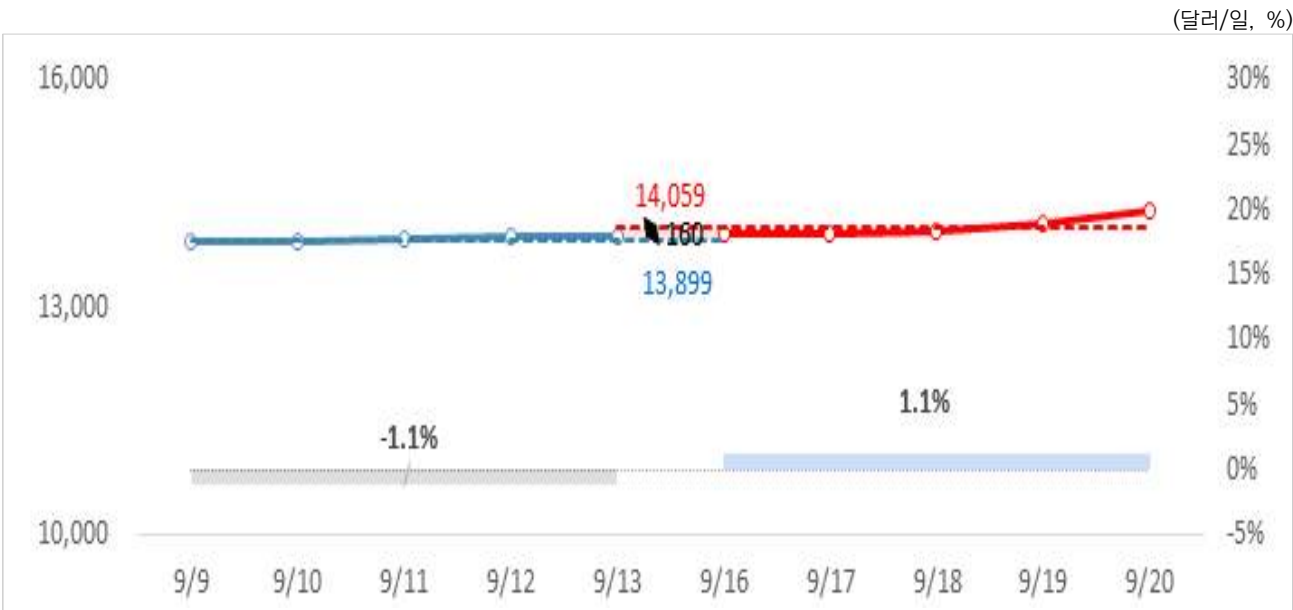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수프라막스선

(운임) 전주 대비 1.1% 상승한 14,059달러/일 기록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9월 3주	9월 2주	전주대비차이		
BSI		1,273	1,261	▲	13	1.0 %
스팟운임(10TC)		14,059	13,899	▲	160	1.1 %
용선료	6개월	17,125	17,125	-	-	- %
	1년	16,250	16,250	-	-	- %
	5년	15,250	15,250	-	-	- %
FFA	10월물	14,433	14,175	▲	258	1.8 %
	4분기물	12,810	12,691	▲	119	0.9 %
	'25년	12,544	12,437	▲	107	0.9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전문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전주 대비 145p 하락한 2,366p를 기록

(운임) 주요 원양항로 운임 모두 하락하며 세 자릿수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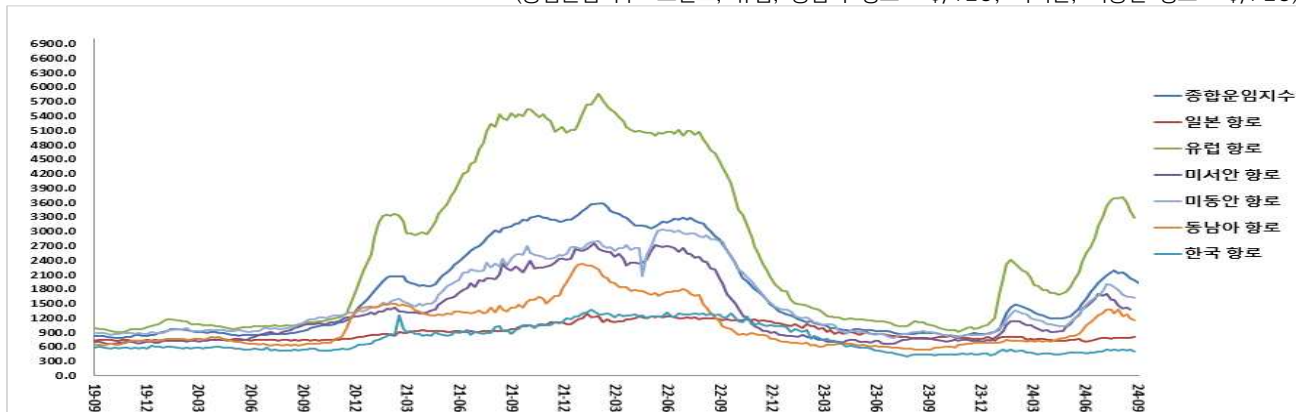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주요 항로 시장에서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며 운임 하락세 지속

(현황) 공급대비 기대에 못미치는 수요로 인한 운임 경쟁 지속

- 아시아-유럽 항로는 희망봉 우회, 중국 국경절 등의 변수로 인한 즉각적인 공급조절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전히 공급 대비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경쟁으로 인한 운임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아시아-북미 항로는 선사들의 화물 확보 경쟁으로 10월까지 운임 연장 또는 일부 선사의 특가 운임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미 동부지역 파업, 태풍 영향에 따른 선박 정체 등의 변수 요인 존재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09월 3주	전주대비	2024년			2023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종합운임지수	SCFI	2,366	-145	1,731	3,734	2,600	887	1,760	1,006
운임	유럽항로	2,592	-249	1,943	5,051	3,336	562	2,694	882
	미서안항로	5,341	-153	2,775	8,103	5,230	1,148	2,553	1,607
	미동안항로	6,486	-352	3,931	9,945	6,882	2,010	3,559	2,529
	한국항로	141	-6	138	172	157	131	238	161
	일본항로	309	3	297	309	302	306	927	337
	동남아항로	412	-35	259	753	452	140	208	17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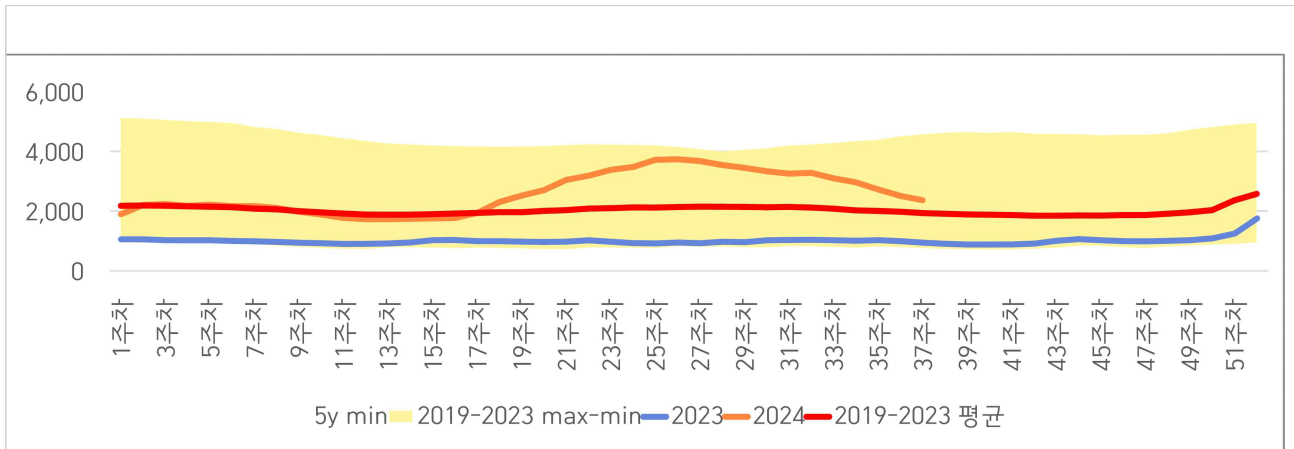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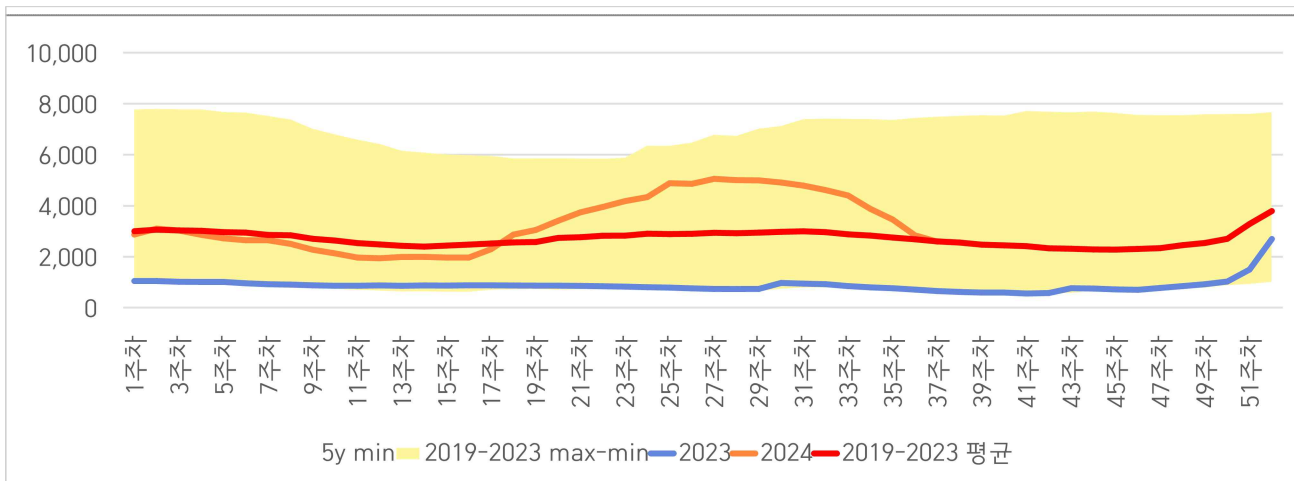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9월 4주('24.9.23~'24.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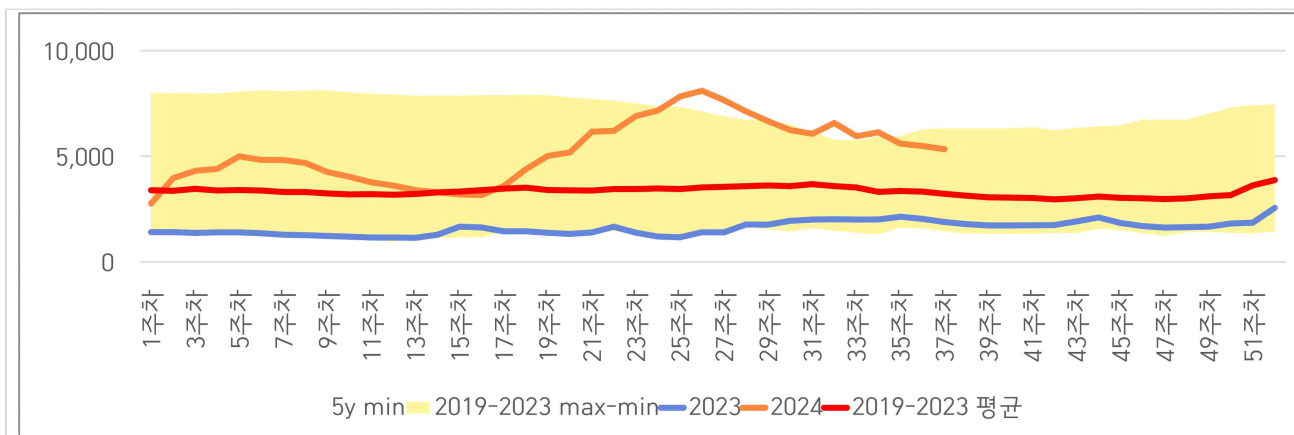
SCFI 지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





거래실적				('24.09.02~'24.09.20')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건의 중고선 64건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Martha	2014	81,811	DWT	2024-09-20	26.00	Nikko Kisen KK	Greek interests
Tanker	Sake	2005	300,390	DWT	2024-09-20	40.00	Dynacom Tankers Mgmt	Undisclosed interests
Gas C'rier	Wind 7	1996	39,000	cu.m.	2024-09-20	26.50	CDP Shipping Ltd	U.A.E. interests
Bulk	Sassy Sofia	2005	32,759	DWT	2024-09-18	9.00	Taylor Maritime	Lebanese interests
Bulk	Giorgos Confidence	2013	32,702	DWT	2024-09-17		Orient Shpg Rot.	Undisclosed interests
Gas C'rier	Grace Cosmos	2008	149,790	cu.m.	2024-09-17		Nippon Yusen Kaisha	Chinese interests
Bulk	Apollon	2017	75,614	DWT	2024-09-16		Lavinia Bulk	Chinese interests
Container	Manila Voyager	1997	2,109	TEU	2024-09-16		Sinokor Merchant	Chinese interests
Container	Melanesian Chief	2008	1,118	TEU	2024-09-16	9.40	Songa Box	U.S. interests
TankChem	Songa Peace	2009	19,993	DWT	2024-09-16	23.80	Arne Blystad AS	Far Eastern interests
Container	Turkon Istanbul	2008	1,878	TEU	2024-09-16	16.49	Turkon Line	Greek interests
Tanker	Jag Lalit	2005	158,344	DWT	2024-09-13	33.00	Great Eastern Shpg	Undisclosed interests
Gas C'rier	Bashundhara LPG Warrior	2005	78,908	cu.m.	2024-09-12	61.00	Bashundhar a LP Gas	U.A.E. interests
Offshore	Calista	2013	78	LOA	2024-09-12		Hermes Panama	Middle Eastern interests



Bulk	HB Golden Eagle	2020	37,720	DWT	2024-09-12	28.50	Taylor Maritime Inv	Undisclosed interests
Tug	Jin Dong Hai Gang Zuo 2	2011	1,014	HP	2024-09-12	0.23	Guangdong Jindonghai	Clients of Jiangsu Jingsifang
Offshore	Posh Antares	2016	6,600	HP	2024-09-12		POSH	Middle Eastern interests
Offshore	Ziris	2018	41	LOA	2024-09-11		Advanced Way	Undisclosed interests
Bulk	Eternal Hakata	2014	61,353	DWT	2024-09-10	24.70	Shikishima Kisen	Undisclosed interests
Bulk	Azure Ocean	2007	180,184	DWT	2024-09-09	24.60	Yangpu Weihai	Chinese interests
Gas C'rier	Gas Cauayan	2006	5,020	cu.m.	2024-09-09	7.40	Pinnacle Logistics	Undisclosed interests
Car C'rier	Hoegh New York	2005	6,500	Cars	2024-09-09	60.60	Hoegh Autoliners	Undisclosed interests
Bulk	Kitaura	2012	119,363	DWT	2024-09-09	25.00	Nissen Kaiun	Clients of Alberta Shipmngt.
TankChem	Maersk Barry	2006	29,041	DWT	2024-09-09		Maersk Tankers	Far Eastern interests
Offshore	Soehanah*	2007	375	Water Depth	2024-09-09	190.00	Vantage Drilling	Clients of ADES
Offshore	Topaz Driller*	2009	375	Water Depth	2024-09-09		Vantage Drilling	Clients of ADES
Container	Spirit of Hong Kong	2010	4,431	TEU	2024-09-06	30.00	Asian Spirit SS	Clients of SM Line
Bulk	Mineral Charlie	2012	205,236	DWT	2024-09-05	39.00	Bocimar NV	Undisclosed interests
Dry Genl	Ju Hang 79	2012			2024-09-04	0.80	Chongqing Juhang	Chinese interests
Bulk	Nord Magnes	2011	179,545	DWT	2024-09-04	31.00	Norden A/S	Undisclosed interests



Bulk	Titan I	2009	58,090	DWT	2024-09-04	16.00	Costamare Shipping	Indonesian interests
Dry Genl	Yu Hang 5188	2014			2024-09-04	1.30	Unknown Chinese	Chinese interests
Tanker	Conqueror	2004	70,616	DWT	2024-09-03	19.00	Peninsula Petroleum	Chinese interests
Dry Genl	Ju Hang 68	2012			2024-09-03	0.79	Chongqing Juhang	Chinese interests
TankChem	Lyderhorn	2006	33,849	DWT	2024-09-03	26.66	Chem Tank Invest	Far Eastern interests
Bulk	Maple Fortitude	2011	32,491	DWT	2024-09-03	11.00	Maple Leaf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TankChem	STI San Antonio*	2014	49,990	DWT	2024-09-03	42.50	Scorpio Tankers	Undisclosed interests
TankChem	STI Texas City*	2014	49,990	DWT	2024-09-03	42.50	Scorpio Tankers	Undisclosed interests
Dry Genl	Gui Ping Fei Da 6666	2021			2024-09-02	0.75	Unknown Chinese	Chinese interests
Pass.	Jin Zhi Yun 07	2001			2024-09-02	0.02	Guilin Dingyin	Chinese interests
Pass.	Jin Zhi Yun 08	2001			2024-09-02	0.03	Guilin Dingyin	Chinese interests
Pass.	Jin Zhi Yun 09	2002			2024-09-02	0.03	Guilin Dingyin	Chinese interests
Dry Genl	Ming Zhu 6028	2021			2024-09-02	0.73	Unknown Chinese	Chinese interests



주요 해운지표

4. 주요 해운지표

(2024.09.20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09월 평균	2024년			2023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	-	-	-	-	-
유조선(5년)	VLCC	116	0	116	106	116	113	98	105	100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27	0	27	15	27	23	15	21	19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37	0	37	35	37	36	33	35	34
유조선 VLCC	129	0	129	128	131	129	120	128	125
컨테이너선 Sub-Panamax	42	0	42	41	42	41	41	43	42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28	21	419	407	517	470	367	592	471
	Singapore	455	13	445	439	536	489	378	580	470
	Korea	491	3	485	475	563	516	439	583	501
	Hong Kong	466	7	461	457	568	504	421	577	491
VLSFO	Rotterdam	513	8	517	505	615	567	514	631	570
	Singapore	590	10	600	578	657	623	554	705	622
	Hong Kong	594	3	604	591	680	631	574	703	635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	-	-
	중국産				-			130	165	149
연료탄 (\$/Tonne)	국제價				-			98	133	114
	중국産				-			119	149	136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	-	-	-	-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225	371	288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012	6	1,010	957	1,277	1,138	1,253	1,544	1,391
	밀(국제)	569	-26	573	524	700	583	542	792	651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월	2월	3월	2024년 합계	2023년 합계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ASEAN	수출	8,779	8,556		17,335	109,153	124,889	108,826	
	수입	7,475	6,206		13,681	78,027	82,529	67,705	
NAFTA	수출	12,256	11,669		23,925	136,373	130,259	113,907	
	수입	7,487	6,561		14,048	85,103	98,901	87,472	
EU	수출	6,566	6,198		12,764	74,145	74,413	69,576	
	수입	4,798	5,311		10,110	73,009	73,966	71,740	
BRICs	수출	13,137	12,341		25,478	154,149	187,108	194,151	
	수입	14,368	11,549		25,918	168,677	189,991	173,284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